《컬렉션_오픈 해킹 채굴》–회화 부문

김현숙 (이응노연구소 소장)

본《컬렉션_오픈 해킹 채굴》의 구성을 일견하는 것만으로도 미술관의 미션과 비전, 그에 따른 작품 수집 방향의 윤곽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한편 '회화'가 소장품의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회화 수집품을 시대별, 주제별로 분류하고 그 수치를 계산해본다면 역으로 미술관의 정체성과 비전 및 그에 따른 수집 방향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만약 분석 결과 미술관의 비전과 소장품 현황의 괴리가 확인된다면 미술관은 속히 수집 방향을 재설정하여 조정해야 할 것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장르 구분의 애매함, 주제 선별의 난이도, 분류의 명확성 등이 걸림돌이 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소장품의 상황 분석 및 연구 작업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치밀하게 수행되야 하나 이번에는 주어진 여건에 따라《컬렉션_오픈 해킹 채굴》에 부합하는 성격의 회화 작품을 선별하고 코멘트를 첨부하는 차원에서 그쳤음을 밝힌다.

회화 컬렉션을 시기별로 나눈다면 일반적인 분류에 따라 근대/현대/당대로 나눌 수 있으며–시기별 기점을 언제로 지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이 따를 것이므로 이 지면에서는 논외로 한다.–어느 시기에 중점을 두고 컬렉션이 형성되었는가에 따라서 미술관의 정체성과 방향성이 드러나게 된다. 필자가 의뢰 받은 '회화' 파트는 당대와 일정한 거리를 둔 '현대'를 관장하는 시기로 대략 1960년대 이후의 회화로 설정하였다.

1960년대 이후의 '현대 회화' 컬렉션을 소장품 수의 비중에 의거하여 구분한 결과 민중미술/도시 서울 관련/추상화/여성미술로 큰 윤곽을 잡을 수 있었다. 이 중에서 민중미술은 본 컬렉션 전시의 한 파트인 '사회적 미술'로, 도시 서울 관련 작 또한 전시의 다른 한 파트로 구성되어있으므로 필자는 현대 회화 컬렉션 중에서 여성미술과 추상화만을 대상으로 작품을 선정하였다.

서울시립미술관 컬렉션 중 여성미술가들의 비중은 1997년 천경자의 작품 93점을 기증받으면서 수치가 상승된 후 2000년대에 들어와 꾸준히 증가하여 2013년에 대략 37퍼센트에 달하였고 최근 더욱 증가세에 있다. 2013년 이후의 변화는 한국 여성주의 미술의 향

방을 모색해오던 김홍희 전 관장의 2012년 취임과 시기적으로 맞닿아 있으며, 또한 동시대 여성작가의 국내외 활동상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다.

여성미술 부문에서 선택된 화가는 최욱경과 곽수이다. 두 작가 모두 1940년대 생으로 미국에서 미술교육을 받고 활동했지만 최욱경은 1940년생으로 1960년대에 미국에서 교육을 받았고, 곽수는 1949년생으로 1970년대에 미술학교에 입학했으므로 두 사람의 활동 시기는 10년 이상 차이가 난다. 최욱경은 서울예고와 서울대학교 미대를 다니며 재정적, 문화적 후원 속에서 재능을 발휘했으나 이러한 혜택이 인간으로서, 여성으로서, 작가로서의 고뇌와 번민을 해결하는 열쇠가 되지는 못하였다. 최욱경이 허무와 고독의 늪에서 뜨겁게 타오르는 캔버스를 뒤로하고 짧은 생을 끝낸 반면에 곽수는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도미하여 뒤늦게 미술가의 길을 시작, 현재까지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두 여성화가의 세대 간, 환경적 차이와는 별개로 거대한 화면을 넘나드는 뜨거운 열기, 자유로운 영혼의 숨결, 숨겨진 사적 내러티브에는 우열의 잣대를 들이댈 수 없다. 전후세대 한국 여성미술가의 모범적 상으로 최욱경과 곽수를 추천한 이유는 화폭과의 투철한 정면 대결의 자세에 있기 때문이다.

미술관의 컬렉션 방향과 연계된 결과인지는 알지 못하나 서울시립미술관 회화 부문 컬렉션의 또 하나의 특징으로는 '추상화'의 비중이 크다는 점인데, 필자는 시대의 전위로서 곽인식, 정찬승, 홍명섭의 작품을 선정했다. 이 세 명의 작품은 '기묘하게도' 각각 1점씩만 소장되었다. 곽인식은 일본에서 아방가르드 미술가로 활동하다가 1980년대에 와서야 국내에 소개되었다. 1960–70년대 한국전위미술의 리더였던 정찬승은 1981년에 미국 뉴욕으로 이주하여 활동했다. 곽인식의 작품은 국립현대미술관에 작가 기증으로 다수의 작품이 소장되어 있는 반면 서울시립미술관에는 단 1점뿐인데(회화 외에 조각도 1점 소장되어 있다.), '회화에서 모노(物)'로 이동하는 과도기의 선구적 작품이다. 정찬승의 경우 한국에서의 활동이 '해프닝(Happening)'이 중심이었고 뉴욕에서의 작품도 대부분 소실되어서 현존 작이 매우 희소한 상황인데 다행스럽게도 1점을 소장하고 있다. 홍명섭은 국내 미술대학 조각과 출신이어서 회화 분야의 경계를 벗어난다고 할 수 있겠으나 소장 작이 평면화인 데다가 작품 개념이 경계의 안과 밖을 뒤집어 경계 자체를 마모시키는 동시에 경계도, 위계도 없는 위상을 상상하고 사유하도록 도모하는 데에 있으므로 회화 분야 추천작으로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

곽인식은 1919년생이고 정찬승은 1942년생이며 홍명섭은 1948년생이다. 곽인식과 나머지 두 작가와는 20년에서 30년 정도, 정찬승과 홍명섭은 10년 정도 차이가 난다. 활동

반경과 작품의 제작지가 일본, 미국, 한국으로 각각 다르며 평면에서 물(物)로, 물에서 신체로, 신체에서 정크(Junk)로, 시간에서 과정으로의 이동이라는 한국 아방가르드 미술의 변곡점을 제시하고 있어 흥미롭다.

본 원고는《컬렉션_오픈 해킹 채굴》(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2021.01.26 ~ 2021.04.11.)의 도록『컬렉션_오픈 해킹 채굴』(2021)에 수록되었습니다.

© 작가, 저자,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모두의 연구실 '코랄'에 수록된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은 해당 작가, 저자, 그리고 서울시립미술관에 있으며, 저작자와 서울시립미술관의 서면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